



불법 전격살충기 (전기 모기퇴치기)의 위험성

인류와 모기와와의 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기와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인류는 그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를 경험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881년 시작된 파나마 운하 건설이 모기로 인해 중단된 사건이다.

모기에 불린 노동자들이 황열과 말라리아에 걸려 1,200여명이 사망했고 공사는 1884년 중단됐다. 기원 전 2세기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역시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병에 걸려 죽었다는 설도 있으니 모기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모기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다양한 전기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전격살충기가 유독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격살충기는 직접적 접촉방식으로 조명램프를 사용하여 해충들을 유인하고 제곱에 접촉되면 감전시켜 죽이는 기능성 제품이다. 이러한 전격살충기 제조는 중국 등 동남아를 통하여 제조함으로써 국내의 제조공장과 단가경쟁 및 시장성 확보를 위하여 부한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전격살충기 제조업체들은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반

면 일부 제조 및 수입 업체들은 중국 등 동남아에서 질이 낮은 제품을 저가로 들여와 시중에 대량 유통시키고 있으며, 이런 업체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져가고 있다.

현재 전격살충기의 판매는 주로 온라인이나 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에서 실시한 불법제품조사 중 한 판매자는 전격살충기의 성능을 보이주기 위해서 이쑤시게 등의 불체로 작동 부품을 쑤시 소리와 스파크를 직접 시연한 후 성능이 뛰어나며 일반 시민들에게 광고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는 “소비자들이 불법 전격살충기에 대한 위험성을 모른채 싼 가격과 효과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 유통 상가가 밀집된 청계천, 화곡동, 창신동일대에 안전인증은 받지 않은 불법전격살충기가 주로 유통되고 있으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노상에서 판매가 이루어 진다”고 밝혔다.



김 태 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주임
02-890-8300



▲ 불법 전격살충기(전기 모기퇴치기)의 판매현장

더욱 큰 문제는 현재 몇몇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쇼핑몰에 대해 2008년 6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해당 쇼핑몰에 판매금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격살충기의 위험성은 모기 및 해충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피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4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시중유통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전격살충기 7개 제품을 시험 의뢰한 결과, 안전인증을 받은 전격살충기 7개 업체중 4개의 업체가 안전인증 취소되어 그 위험성이 노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5월 서울시와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서울시 일대에 판매되고 있는 시중유통업체에 대하여 단속 결과, 전격살충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16 곳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기도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와 협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불법 전격살충기는 시민의 안전과 건전한 시장환경에 지해되고 있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책임감 없는 유통업사의 구분별한 불법제품유통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회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 안전인증이 취득된 제품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이러한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시장 감시 및 확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기술표준20089